

光日春秋

이서향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시간을 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달이 지고 해가 뜨는 자연현상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부여하여 달력을 만들고 해(年)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으며 해가 바뀔 때 사람들은 앞일을 예측하면서 새 희망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무자년 새해도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바람을 안고 기지개를 편 지 벌써 열흘이나 지났다. 벽두부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국민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지만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10년만의 정권교체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국제정세는 과연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예측력을 동원해 앞을 내다본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전망이 가능하다.

무자년의 국제정세 전망

상황에 따라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에 일정 변화가 예고된다.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기후변화에의 대응문제다.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기후변화가 환경·안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는 선진국의 에너지 사용, 경제구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목표 설정과 이행방법을 둘러싸고 국가들간의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계경제 측면은 새해 초부터 나타난 고유가 행진이 보여주듯 불안정성과

불균형성이 내연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고유가와 함께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국가의 자원수요 급증, 유동성 과잉에 따른 투기적 수요의 확산, 달러화의 가치 하락 및 이에 따른 세계적 불균형 조정의 어려움 등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경제도 관도 자체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이 필요한 이러한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배경으로는 미국이 갖는 경제적 위상의 약화, 단일경제권 유럽연합(EU)의 영향력 증대, 중국을 비롯한 이른바 브릭스(BRICs)의 급속한 부상, 그리고 동아시아의 세계경제의 중

심지역으로의 부상을 들 수 있다.

셋째, 동북아로 눈을 돌려보면 이 지역이 앞으로 당면할 구조적 도전의 요소는 '변환하는 미국'(transforming U.S.), '부상하는 중국'(rising China), '보통화하는 일본'(normalizing Japan), 그리고 '복귀하는 러시아'(returning Russia)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지역에서는 기존의 패권국가, 신흥국가, 그리고 재도와·재부상을 쫓는 국가군(群)간의 경쟁과 견제가 표면화되면서 새로운 세력구도가 형성되고 그 결과 지역안보정세의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한반도를 보면, 북한에 있어서

는 대내외적으로 체제변화를 향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구도 공고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한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시도할 것이나 회복이 부진한 경제는 향후 국제사회의 지원에 그 추이가 영항 받게 될 것이며 핵무장의 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개편을 위한 환경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국의 '실용정부' 출범과 중국의 '대북 괴로움'이 영향을 미쳐 북한이 핵폐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과 교역은 크게 줄 것이며 이는 북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남북관계도 핵문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 속에서 진전과 정체를 반복하는 이상한 형태의 발전주세를 보일 전망이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를 보면, 어느 하나도 쉽게 해결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능력인 만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혼란과 불행은 없을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후퇴하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 혁신도시 건설, 교육정책 등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및 자회사의 민영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기업의 민영화 및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의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전과 자회사인 한전기공,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핵심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이 민간에 넘어가면 혁신도시의 빈집대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민간기업의 본사 이전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문제다. 규제를 서둘러 완화하면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하고 비수도권의 고사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수월성과 자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도 걱정이 다. 고교 평준화 틀이 깨지고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양극화 현상은 심화된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인구의 48%, 생산기능의 60%, 사회·경제·문화기능의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 정상일 수는 없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면 지방자치와 지방경제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면 안 된다. 새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을 희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는 빈집대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민간기업의 본사 이전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솟는 생활물가 서민들만 고달프다

연초부터 생활물가가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와 밀가루, 콩 등 국제 곡물류 값이 급등하면서 식육화축 및 식품, 제과업체가 잇달아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아직 오르지 않은 품목도 인상 대기 중이다. 국민들은 장바구니에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 지를 실감하고 있다.

인상폭은 매우 가파르다.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값이 500원 정도 올랐고 빕과 류 값은 10~15% 인상됐다.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과 라면, 음료수 가격도 올랐거나 오를 전망이다. 초·중·고·대학의 등록금은 상당폭 인상됐고 일부 공공요금도 들쭉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3.6%나 올랐다. 2004년10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5~3.5%)를 넘어선 것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및 곡물류 값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올 물가상승률은 전망치 3%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 급등은 새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웠지만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면 물가는 더 올라 서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책을 수립, 물가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부에선 우리 경제가 저성장 속에 고통을 행진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달러화의 약세와 유가 및 원자재, 곡물류 값 등 대외적 여건이 개선될 조짐은 별로 없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를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새 정부는 당장이라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유류세와 통신비부터 인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소득이 늘어 물가가 오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다들 바쁘게 산다. 왜들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답이 단연 으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바쁘다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해 질까? 거액의 복권당첨자들 거의 대부분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늘 듣는 얘 기인데..

필자는 최근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와 필리핀을 다녀왔다. 그 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한 가정이 월 5~10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시장 통에 앉아 장거 같은 것을 두며 왓자지껄 웃어대는 어른들이나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먼지투성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 자체 때문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냐고 묻는다면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답이 단연 으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바쁘다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해 질까? 거액의 복권당첨자들 거의 대부분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늘 듣는 얘 기인데..

필자는 최근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와 필리핀을 다녀왔다. 그 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한 가정이 월 5~10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다.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가?

위험한 길거리에서 장난감도 없이 맨 발로 뛰노는 아이들의 얼굴은 포동포동 살찐 한국의 아이들이나 매일매일 돈벌이에 긴장되어 있는 각박한 우리보다 훨씬 여유롭고 편안해 보인다. 우리는 그들보다 수십 배를 더 많이 벌고 그들 기준으로는 궁핍 수준에서 사는 데 말이다.

지금은 자동차로 3분이면 갈 수 있는 4km 십리 길을 필자가 어렸을 때는 하루 계획을 세우고 한 시간씩 걸려 걸어야 했다. 모든 것들이 편리해졌고 국민 소득은 수십 배 올랐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 때보다 수십 배 더 행복한가?

돈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답이 명확하지만 '그렇지만'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또 '바쁘게' 인생을 낭비해야 하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 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 자체 때문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냐고 묻는다면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답이 단연 으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바쁘다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해 질까? 거액의 복권당첨자들 거의 대부분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늘 듣는 얘 기인데..

필자는 최근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와 필리핀을 다녀왔다. 그 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한 가정이 월 5~10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 되어지는 것은

기고

명장환



서울에 사는 A씨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주말이면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바쁜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어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각종 자료와 웹서핑을 통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가족과 함께 가볍게 떠난다.

여행지 선택기준은 도시 색채가 적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사람들의 질린한 삶이 녹아있는 5일 시장 등 다양하다. 이번 주말에는 남도도 떠날까 한다. 자동차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목적지를 지나 해남 땅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고천왕 철새의 군무와 갈대밭을 감상하고 영암 한옥민박에 여장을 푼다. 뜨끈뜨끈한 온돌이 어릴 적

않은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광주·전남을 '21세기 한국의 문화·해양·생태관광 센터'로 발전시킨다는 비전 아래 광주·전남의 관광지를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관광객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기 하기 위한 수용태세를 확립하며, 지역 내 축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님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맞이하고, 더 나아가 만족을 넘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도민들의 마음가짐과 실천이다.

광주·전남 시도민, 특히 숙박업, 음식

'감동'을 선물하자

고향에 온 느낌이다. 저녁식사 때 맛 본 육지와 바다 음식을 아우른 남도한정식의 푸짐한 상차림과 주인 아주머니의 살가운 손님맞이가 기분좋은 잠을 청하게 한다.

2008년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광주·전남 방문의 해'다. 관광이 산업으로 대우받고 바야흐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정받는 시대다. 광주·전남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관광으로 엮어 산업으로 추구하는 '축복'이란 왜 예수의 제자들 중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하는 의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통해 350만명의 순증 관광객을 포함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3천312만명으로 잡고 있다.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도록 하고, 이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감동시켜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자명해지지

않은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광주·전남을 '21세기 한국의 문화·해양·생태관광 센터'로 발전시킨다는 비전 아래 광주·전남의 관광지를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관광객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기 하기 위한 수용태세를 확립하며, 지역 내 축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님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맞이하고, 더 나아가 만족을 넘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도민들의 마음가짐과 실천이다.

광주·전남 시도민, 특히 숙박업, 음식업, 운송업 등 관광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즐겁게',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도록 첫인사, 말투, 서비스, 마지막 인사, 프라이버시 보호 등 하나에서 열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한국의인 고향, 남도도 오십시오"라고 자신있게 권유할 수 있도록 말이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컨셉인 '발견과 감동'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체 차원의 자발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 친절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광객들이 광주·전남에서 고향같은 따뜻함을 느끼고, 다른 지역에서 맛 볼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맛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방문하여 떠나는 순간까지 모든 시도민들이 '관광 진도사'라는 인식을 새롭게 다질 때이다. <전남도 관광진흥과장>

미아사고 대비해 어린자녀 지문 남겨두자

몇 년전 목포에 살 때의 일이다. 이웃집 부모가 주말에 놀이공원에 갔다가 내삼박이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 부모는 몇 달 동안 아이를 찾았지만 실패하고 지금은 거의 포기한 채 슬픈 나날을 보냈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울까. 마치 우리 아이를 잃은 듯한 느낌이 들어 이웃으로써 맘이 아팠다. 그 후 우린 광주로 이사해 연 락이 끊겼는데 지금은 아이를 찾았는지 모르겠다.

아이의 잃어버릴 경우에 대비해서 어린

자녀의 지문을 찍어 보관해 두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가정에서 인주로 그저 깨끗한 A4용지에 손가락을 180도 회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 윤선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지문 채취를 부탁해도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의 지문을 남겨 보관해 두면 미아·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훗날 이 지문이 중요한 단서가 될 성인이 된 자녀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신영하·광주시 북구 대촌동

안개길 안전운전 요령 숙지 돌발사고 대처해야

이상기온의 여파가 심각하다. 한겨울 추위가 사라지고 아침저녁의 일교차로 안개 낀 날이 많아졌다.

특히 나주지역은 영산강·황동강이 있어 이들 주변도로는 가시거리가 불과 몇 미터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심하다. 아침 일찍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처럼 안개길 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안개지역을 운전할 때 몇 가지 안전운전 요령을 알아두면 돌발 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안개 지역 운행시에는 속도를 늦추고 차폭등·안개등을 켜서 상대방에게 자동차의 존재를 알리야 한다. 또 앞차의 미등이나 차선, 가드레일 등을 기준으로 삼아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평소에도 '안개지역'을 의뢰하면 도움이 된다. <최영호·나주소방서

無等鼓

전직 국회의원들이 신분 변화를 가장 실감하는 경우가 공항을 이용할 때라고 한다. 급배지 시절 무서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과는 달리 일반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비행기에 탑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항 귀빈실 이용은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혀 왔다.

내의 귀빈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공항 귀빈실은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민정부 시절 전·현직 대통령과 3부 요인, 현재 소장, 교섭단체 대표, 외국 귀빈으로 대상자를 대폭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2001년에는 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공항 귀빈실 사용을 제한하려다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를 백지화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인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들이 공항 귀빈실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

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귀빈실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 1천명 선정에 착수했다. 참여정부 때도 성실 납세자들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수출 역군이자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해온 기업인들의 공항 귀빈실 사용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너도 나도 특별대우를 바라는 우리 사회 풍토에서 공항 귀빈실을 1천명 기업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1천명에 끼지 못한 대다수 기업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등 근본 대책이 효과적이다. 기업인의 공항 귀빈실 허용 발언은 우리 사회가 기업인을 VIP로 예우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닐까.

/김영철 사회2부장 ajkim@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孝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00-500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